

# 영국의 독자개발

:개관 및 사례 보고서

## 영국의 독자개발:개관 및 사례 보고서

X  
.....  
X

X  
.....  
X

X  
.....  
X

X  
.....  
X

<영국의 독자개발:개관 및 사례보고서>는 2013년 3월 20일(수)~21일(목)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주한영국문화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후원으로 열렸던 한·영 독자개발 국제 세미나 <즐거운 책 읽기:리딩 바이러스>의 후속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세미나의 동영상과 자료집은 주한영국문화원 홈페이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X  
.....  
X

## 목차

1	독자개발의 정의	004
2	초창기의 독자개발 사례	010
3	독자개발을 위한 자원과 목적	018
4	누가 독자개발을 실행하는가	024
5	뛰어난 독자개발 사례	040
6	파트너십 활동	064
7	개별 행사에 적용 가능한 모델	074
8	언론매체를 활용한 독자개발	082
9	참고문헌	088
	- 단행본	
	- 논문	
	- 웹사이트	
10	소개	092
	- 톰 팔머	
	- 영국문화원	
	- 주한영국문화원 아트팀과 독자개발 관련 사업 소개	

### \* 일러두기

ㄱ. 본문에 사용된 단체명 및 독자개발 사업명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영어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고 원문에 쓰인 명칭을 병기하였습니다.

ㄴ. 기울여쓰기와 홑따옴표 사용은 영어 원문의 표기를 따르되, 명칭 및 이름 등을 구분하는데 필요할 경우 임의로 홑따옴표를 추가하였습니다.

ㄷ. 본 자료의 주요 개념으로 쓰인 'reader development'는 '독자개발'로 'reading for pleasure'는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로 번역하였습니다.

ㄹ. 본문에 쓰인 'Arts Council England'는 국내에서 두루 쓰이는 번역인 '영국예술위원회' 대신 기관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내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로 번역 및 표기하였습니다.

# 01 독자개발의 정의

## 1.1 독자개발이란 무엇인가?

독자개발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책을 읽는 이들을 격려하는 활동이며, 독서를 통한 즐거움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독서의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개발은 일반적으로 책 읽기의 결과로 여겨지는 지식 습득 혹은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다기 보다 독서 자체에 집중합니다. 독자개발은 독자들이 폭넓게 책을 읽고 어떤 책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고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독자개발에는 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자 개발에는 사회적 목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다니엘 페낙Daniel Pennac Centre은 소설처럼 Reads Like a Novel이라는 작품에서 ‘독자의 권리’ 10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10가지 권리는 책의 저자나 책을 통한 교육보다 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영국에서 독자개발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철학과도 상통합니다.

## 독자의 권리

- 1 책을 읽지 않을 권리
- 2 내용을 건너뛰길 권리
- 3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 4 다시 읽을 권리
- 5 무엇이든 읽을 권리
- 6 책의 내용을 현실과 착각할 권리
- 7 어디에서든 읽을 권리
- 8 내용에 폭 빠질 권리
- 9 소리 내어 읽을 권리
- 10 조용히 읽을 권리

## 1.2

**독자개발의 공식적 정의**

영국에서 독자개발을 실행하는 주요기관 중 두 곳인 '오프닝 더 북 Opening the Book'과 '영국독서연맹 The Reading Agency'은 독자개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독자개발은 개별 서적이거나 작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경험과 책 읽기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독자개발은 독자들이 개별 작가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어 문학 독자층을 형성해 냅니다.”

오프닝 더 북

“(독자개발은) 독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개입이며, 독서 지평의 확장은 대개 사람들이 독서 경험을 서로 나누도록 이어줌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영국독서연맹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독자개발을 통해 사람들의 책 읽기에 개입하고 사람들이 몰두하는 지점에 변화를 줘야 할까요?

## 1.3

**독자개발의 필요성**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많은 공공도서관은 소설을 읽는 성인독자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음을 인식했습니다. 도서관 지원은 중앙 정부가 진행하는 208개의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인 독자들보다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대한 독자개발 활동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의 사서들은 '독자개발'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소설을 추천하고 소설 읽기를 장려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서 업무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성인을 담당하는 사서들의 경우 논픽션은 주저하지 않고 추천했지만, 소설을 추천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서들이 소설 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도서관 직원의 역할은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자에 대한 개입은 민주적인 관점에서 본 도서관의 임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독자들이 책이나 저자에 관한 어떠한 편견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어진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소설을 대출하는 성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고, 도서관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소설을 읽는 성인 독자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법의 하나로 독자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독자 개발이 제안되었습니다.

## 1.4

**책 읽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초창기 독자개발은 책 읽기의 목적에 대한 전통적 개념들과 거리를 두고자 했기 때문에 독자개발에 대한 논의의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한 개념들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책 읽기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들은 가족과 학교의 교육에서 얻기도 하고, 문학적 권위를 통해 전달받기도 합니다. 독자개발은 이에 맞서 독자들이 책 읽기에 대한 선입견들을 잊도록 합니다.

책 읽기가 꼭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 읽기는 그저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책 읽기는 일종의 탈출일 수 있습니다. 감동받을 필요가 있을 때 감동을 받기 위한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 읽기가 반드시 교육이나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책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읽기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페낙의 '독자의 권리'에서 본 것처럼, 원하지 않는다면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읽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잘 맞지 않는 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책 읽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책이 실망을 안겨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 1.5

### 독자개발의 목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창기 독자 개발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들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때로는 익숙해진 책 읽기 습관을 벗어나기도 하면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하게 돕는 것
- 책 읽기의 목적에 관한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것
- 책 읽기 경험의 중심에 저자나 책이 아니라 독자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살펴보면, 책 읽기는 그 자체로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독자는 책 읽기에 자신의 자아와 경험을 동원하며,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마음 속에 책을 구축합니다. 그 결과, 책 읽기는 한 개인에게 글쓰기 못지 않은 창조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독자개발은 최근 몇 년 동안 책 읽기가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는 제한적 관념 또한 넘어섰습니다. 점차 더 많은 독자개발 활동이 삶의 기회를 늘리는 것과 영국을 더 번영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에 뿌리를 두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현재 영국에서는 육체와 정신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책 읽기를 활용하는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여기에서 이번 장을 마무리하고, 목적의식 있는 책 읽기에 관해서는 좀 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02

## 초창기의 독자개발 사례

독자개발이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었는지 돌아보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초창기 독자개발은 독자들 스스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협력기관이 다양해지면서 독자개발은 더 복잡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개발은 이상주의적이었던 초창기의 출발점으로부터 범위를 더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 2.1

## 독자개발을 위한 최초의 시도들

최초의 독자개발은 공공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수백만 권의 책이 있었지만, 독자들은 그 책들을 다 읽을 수도,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독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책을 읽기 좋아하는지에 대해 아주 뚜렷한 동시에 제한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책 읽기 습관을 평생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독자개발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었고, 처음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 흥미로운 책 진열방법과 책 읽기 관련 활동 만들기 : 독자들이 그 동안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 저자 행사 : 다양한 책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독자들에게 책을 처음 출간한 저자들을 소개하고, 독자들이 그 동안 생각해본 적 없는 작가와 장르의 조합을 소개합니다.
- 책 읽기 모임 만들기 : 독자들이 어떤 책을 읽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른 독자들이 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독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읽고 싶어하는지, 어떤 종류의 책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고 있습니다.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음악 애호가들이 무엇을 마시고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지 스스로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독자 개발은 책에 대한 이와 같은 고정관념과 독자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 모두에 질문을 던집니다.

한편, 독자개발에 힘쓰는 사서들이 강조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독자개발에 관한 업무를 미리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서들은 독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독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들어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책 읽기에 관해 모험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특정한 어떤 책을 읽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 2.2

## 초창기의 독자개발 단체들

1990년대 중반, 공동체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한 웰 워스 리딩 Well Worth Reading과 오픈 더 북 Opening the Book이 영국의 독자개발에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두 단체는 성인 독자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했던 도서관 당국에 대한 지원을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웰 워스 리딩은 영국 남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서관들을 위한 대규모 독서 증진 행사들을 시험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에는 사서들의 도서 추천, 독자 의견 카드 쓰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신진 소설가와 유명 소설가들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웰 워스 리딩은 영국 내 세 지역에서 이런 기법들을 선보였고, 추후에는 영국 전역에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프닝 더 북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사서들을 훈련하고 영감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영국 북부에서 시작한 이 단체는 지역의 관련 모임들을 도와 이후 영국 독자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 2.3

### 독자개발 기법의 전개

최초로 진행된 독자개발은 도서 진열, 책 읽기 모임, 저자 행사를 통해 독자들이 새로운 책을 찾도록 돕고자 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기법이 성공을 거두자, 사서들은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독자개발 기법을 향상시키기 시작했고, 아래와 같은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 도서 진열: 사서들과 다른 독자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탁자 위에 진열하고, 포스터와 전단으로 이를 홍보합니다.
- 단순한 기법 사용: '이 저자를 좋아하신다면 다른 저자가 쓴 것도 한 번 읽어보세요'와 같은 질문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븐 킹을 즐겨 읽으신다면 다른 공포소설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 책 읽기 피 reading chains: 책을 읽고 의견을 남기면 다른 독자들이 이 같은 책을 읽고 나서 의견을 덧붙입니다.
- 표지가 보이도록 책 쌓아두기: 독자들은 알파벳 순으로 배치된 맛있는 서가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책 표지들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책 읽기 모임 설립 및 증진: 독자들이 모여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독자를 위한 안내자료 만들기: 독자들에게 책에 관한 흥미로운 사고 방식들을 제안합니다.
- 도서관 직원 훈련: 성인 독자들에게 소설을 비롯해 다른 종류의 책을 권할 수 있는 자신감과 지식을 갖도록 훈련합니다.
- 저자 행사의 문턱 낮추기: 저자 행사의 청중들이 저자의 '지혜'를 경청하기 위해 엄숙하게 침묵하고 있기 보다, 저자와 독자가 만나 쌍방향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 '와인과 책이 함께하는 저녁'과 같은 행사 혹은 다른 형식의 혁신적 행사: 이런 행사를 통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책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 2.4

### 책 읽기 모임

책 읽기 모임의 성장은 영국에서 이루어진 독자개발의 큰 성과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이는 일은 몇 세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독자개발이 확대되면서 그러한 모임의 숫자가 몇 천 배나 늘어났습니다.

책 읽기 모임은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 모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임에서는 책 한 권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권의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책 읽기 모임은 친구들과 구성되기도 하지만, 특정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서점의 고객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한 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공유하기 위해 가볍게 술을 한 잔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플롯이나 주제, 이미지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책 읽기 모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보다는 어떤 책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혹은 그런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떠올리게 했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책 읽기 모임에는 점수를 매기는 시험이 없습니다. 강의 계획서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없습니다. 설령 모임을 이끄는 리더가 있다 하더라도, 책 읽기 모임은 기본적으로 모든 참가자가 동등하며 서로 충분히 기여하고 원가를 얻어갈 수도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 2.5

### 책 읽기 안내자료

책 읽기 모임이 점차 발달하면서, 도서관과 출판사들이 책 읽기를 위한 안내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책 읽기 안내자료는 얇은 책자의 형태로, 책 읽기 모임에서 책의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들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초창기 안내자료의 일부는 마치 시험 대비용 토론 질문지 같았고, 독자개발에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책 읽기 모임들과 상담을 거쳐 책의 주제와 역사적 맥락에 관한 질문들을 없앴습니다. 대신 책을 쓴 작가와의 인터뷰, 저자가 좋아하는 책의 목록과 같은 내용을 넣기 시작했고, 학술적인 성격이 덜한 질문들을 넣었습니다.

책 읽기 모임들이 책과 관련한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루길 원치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책에 관해 무엇을 생각할지 지시 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책 읽기 토론이 책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괜찮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미리 던져진 주제만 아니라면 말이죠.

1990년대 말에는 출판사들이 독자개발의 폭발적 성장에 반응하여 출간되는 책의 뒤쪽에 책 읽기 안내자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하퍼 페레니얼<sup>Harper Perrenial</sup>이 출간 도서에 '추신<sup>P.S.</sup>'

섹션을 넣은 것입니다. 이 섹션에는 저자 인터뷰, 사진, 저자가 좋아하는 책과 영화의 목록이 실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법은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은 물론, 어린이 출판 전 영역에서 모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 2.6

### 요크셔, 앞서 나간다!

독자개발을 위한 시험적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거두고 오프닝 더 북과 웰 워스 리딩이 훌륭하게 활동한 덕분에, 여러 도서관 당국이 독자개발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서관에서 '도서관 상주 독자<sup>readers-in-residence</sup>'라는 이름으로 독자 개발 관련 비상근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영국 북부의 요크셔<sup>Yorkshire</sup> 지방은 오프닝 더 북이 진행한 혁신적 독자 개발로 큰 이익을 얻은 최초의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독자 개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성공적 시범 사례를 선보인 곳입니다. 이 지역의 도서관들은 '도서관 상주 독자'라는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도서관이 아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세 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책 읽기 모임 지원, 독서 증진 활동 시작 및 진행과 함께 행사 운영을 맡긴 것입니다. '도서관 상주 독자'들은 도서관과 함께 일할 협력기관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요크셔 지방 전역의 도서관들은 독자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예술 위원회의 문학 담당자 또한 도서관들이 원하는 혁신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지원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오프닝 더 북과 도서관의 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은 지역차원의 협력이 훌륭한 모델임을 입증했고 요크셔 지방은 '독자의 날<sup>Reader Days</sup>' 행사를 처음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독자의 날’은 초창기 독자개발에서 협력기관을 유인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출판사들이 이 행사에 협력을 원했는데, 출판사들은 ‘독자의 날’ 행사가 관련 시장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책의 판매를 돕는 최선의 기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업계 또한 독자 개발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로써 독자 개발이라는 분야가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 03

## 독자개발을 위한 자원과 목적

## 3.1

## 독자개발을 위한 자원

독자개발은 영국 전역의 공공 도서관에서 일하는 몇몇 사서들의 열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이 점차 성공을 거두면서 예술지원을 비롯해 정부의 관련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또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개발 운동은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지원을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독자개발 기법을 퍼트리기 위한 출판, 웹사이트 운영, 회의와 같은 활동들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예술위원회 도서관 펀드Arts Council Library Fund는 1992년 부터 1995년까지 독자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서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16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들은 작은 규모의 활동들을 시험해볼 수 있었고, 독자들에게 가장 잘 맞는 기법이 무엇인지 실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도서관들은 예술위원회의 자금 지원을 활용해 자원과 인력 부족 탓에 실행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시도했습니다.

독자개발을 위한 자금의 유입과 더불어, 오프닝 더 북이 영국 전역에서 진행 중이던 독자 개발 과정들은 사서들에게 새로운 독자개발 기법을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영국 복권National Lottery이 창립되어 자선 및 후원 활동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중 상당 부분이 예술을 위해 쓰였고, 독자개발 또한 이 예산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런 지원은 독자 개발에 엄청난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원을 이끌어 낸 것인데, 개인 사서 차원에서 진행되는 단기 활동에서부터 영국 도서관장협회Society of Chief Librarians가 30만 파운드의 예산으로 전국 단위로 시작한 브랜칭 아웃Branching Out:가치 뿜기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무척 넓었습니다.

한편, 1998년에 진행된 책 읽기의 해National Year of Reading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던 독자개발의 성장에 이바지한 가장 중요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책 읽기의 해는 도서 업계와 교육계의 모든 분야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모든 사람이 책을 읽고 자신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책을 접할 수 있는 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1998년 책 읽기의 해를 위해 진행된 86개 프로젝트는 총 80만 파운드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책 읽기의 해는 특히 각급 도서관 차원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같은 성공은 곧 도서관이 독자개발의 일반지로 알려지게 될 것임을 뜻했습니다.

## 3.2

## 자금지원의 증가

1990년대 후반에는 독자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UK와 예술위원회의 문학 담당 부서는 'DCMS/울프슨DCMS/Wolfson' 자금으로 알려진 지원제도를 실행했습니다.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1997년부터 시작된 DCMS/울프슨 기금은 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공공 도서관으로 유입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지원 활동은 공공 도서관 도전 기금(Public Libraries Challenge Fund)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독자 개발에 총 400만 파운드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 자금들은 모두 영국 전역에서 독자개발이라는 개념을 시험하는 단기 프로젝트에 사용됐습니다.

한편, DCMS/울프슨 자금 운용 2년차에는 참여 기관들의 파트너십, 즉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도서관들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짝을 이루거나 집단으로 일해야 했고, 상업분야나 비영리 분야의 협력기관들 과도 일해야 했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강조는 독자개발을 촉진했고, 도서관업계의 흥미로운 협력기관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이런 변화는 새 기관들이 독자개발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이 기관들은 영국 전역에서 독자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DCMS/울프슨 자금의 지원을 받은 기관으로는 영국 국립독서재단(National Literacy Trust)과 영국독서연맹(The Reading Agency)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독서연맹의 경우 새로운 독자들이 즐길 수 있는 책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위해 바이탈 링크(Vital Link)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바이탈 링크는 기초적인 책 읽기 기술을 제공하는 이들을 비롯해 성인 독자들과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더 나아가 문학 분야 지원을 위한 핵심 예산을 독자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글쓰기 활동만 창조적 행위로 여겨 홍보하고 지원했던 예산을 독자 개발에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폴 햄린 출판사에서 설립한 폴 햄린 재단(The Paul Hamlyn Foundation)이 독자개발을 지원했습니다. 폴 햄린 재단은 죄수, 망명 희망자, 복지 시설 수용 어린이들처럼 일반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 초점을 맞추며, 예술을 통해 사회적 배제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3.3

#### 책 읽기 공동체를 통한 사회적 이익의 가능성

영국 정부는 지난 2003년에 미래를 위한 설계(Framework for the Future)라는 제목의 전략 계획서를 통해 공공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 전략 계획서는 10년을 내다보는 넓은 범위의 계획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으며, 책 읽기의 가치가 단지 개인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즉, 책 읽기가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다가가고 더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전략 계획서는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이 독자개발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자개발이 사람들이 책 읽기를 시작하도록 돕고 새로운 독자를 길러낼 뿐만 아니라, 기존 독자들에게는 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독서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서는 또한 독서에 흥미를 잃어버린 이들과 책에 접근하기 힘든 사회적 집단을 수용하는 독자개발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설계가 발표되면서 독자개발을 통해 이미 성취한 결과와 그 효과가 강화되었고, 사서들의 업무 자신감 또한 더 탄탄해졌습니다. 또한, 이 계획서에서 언급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자금 지원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설계는 독자개발에 있어 책 읽기가 단지 즐거움을 위한 것이며 사회적인 목적은 없다는 기존의 핵심적 관념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 3.4

사회통합

도서관들은 사회의 주류집단과 함께 일하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과도 관계를 맺고자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정부의 시각에서 보기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이들, 혹은 사회소외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은 수입이 낮은 사람, 가족 해체의 피해자, 육체 및 정신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사회복지 체계에 위탁된 어린이, 망명 희망자, 소수 민족 등을 포함합니다.

도서관 서비스는 독자 개발을 통해 이처럼 소외된 집단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공공 도서관을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공 도서관은 공공 기관이며, 따라서 사회 비주류 계층들이 도서관 역시 위협적 존재라고 여기는 인식을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강조한 점은 독자 개발 분야에서 초점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만큼 목적의식 있는 책 읽기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 04 누가 독자개발을 실행하는가

현재 영국에서는 여러 기관과 개인이 독자개발을 위한 발상을 떠올리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요 비영리 기관에서부터 프리랜서와 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독자개발 실행이 이토록 폭넓게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4.1 공공 도서관

앞서 설명했듯이, 독자개발이 시작된 1990년대 이래 공공 도서관들은 지속적으로 독자개발 활동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시도하고 실험한 기법들 중 상당수는 이제 영국 전역의 도서관, 학교, 서점에서 정기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들 역시 새롭고 혁신적인 독자개발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공 도서관들은 최근 경제 위기에서 비롯된 정부의

예산 삭감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이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 인력 또한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 사서들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자원 봉사자들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책과 읽을거리를 구입할 자금 또한 엄청난 규모로 삭감 당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들이 독자개발을 위한 시간과 돈, 열정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많은 공공 도서관들이 여전히 책 읽기 모임, 저자 행사에서 멋진 도서진열과 가족 참여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독자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독자개발에 있어 공공도서관들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독자개발 촉진 활동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 전역의 도서관들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여름 독서대회(Summer Reading Challenge)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4.2 학교

학교들 역시 지난 수 세기 동안 나름의 방법으로 독자개발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영국 정부는 기존의 노력에 덧붙여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에도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미 여러 학교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각급 학교가 교육 계획에 독자개발 전략을 포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영국 학교 도서관 서비스(Schools Library Service)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기관은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Reading for Pleasure)에 영감을 주는 활동을 돕는 다양한 책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영국 정부는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급 학교 차원에서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어떻게 촉진해야 할지 조언했고, 이를 위한 재원을 조성했습니다.

## 4.3

**북트러스트\***

북트러스트Booktrust는 1992년에 설립된 단체로,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비롯해 대형 출판사인 피어슨Pearson 등 다른 협력기관들의 지원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책 읽기와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며, 개인, 가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북트러스트는 어린이 교육이 가장 낮은 연령부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와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책 읽기에 대한 자신감과 선택권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책 읽기와 글쓰기 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서 얻는 행복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북트러스트의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트러스트는 모든 이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즐기고 이것이 평생 동안 안겨주는 혜택을 누리도록 영감을 준다. 우리의 목적은 책 읽기와 글쓰기에 능숙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창조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트러스트는 도서관과 학교, 현장에서의 책 읽기 장려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예산, 행정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1992년부터 이루어진 북트러스트의 여러 프로젝트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국 유아와 가족의 90%에게 무료로 책을 전달한 전국단위의 혁명적인 프로그램인 '북스타트Book Start'의 개발 및 실행
- 책 선물하기 프로그램인 '북트 업Booked Up' 운영: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만 11세의 모든 아동에게 학교를 통해 무료로 책을 지급하였습니다.
- 어린이 문학상Children's Laureate 운영: 현재 그루팔로Gruffalo 라는 작품을 쓴 줄리아 도널드슨Julia Donaldson이 어린이 문학상 수상자로 활동 중입니다.

- 어린이와 십대를 위한 책에 주목하는 상을 운영: 여성소설상Women's Prize for Fiction과 블루 피터 도서상Blue Peter Book Awards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런 상들을 통해 언론이 책 읽기와 읽고 쓰는 능력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 어린이 도서 주간Children's Book Week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과 학교들이 해당 기간 동안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 온라인과 책자 형태로 도서목록을 작성: 이를 통해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에 책 읽기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 다양한 유명인들과 함께 책 읽기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임 이를 통해 여러 행사와 전국 단위의 언론 보도에서 책 읽기에 관한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 학교와 도서관들이 젊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무료 포스터와 자료를 제공
- 각종 행사와 블로그 글 작성을 통해 어린이 책 읽기와 글쓰기를 강조하는 작가 레지던시를 진행: 본 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매트 헤이그Matt Haig가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 우리 학교를 위해 읽자Read for my School 프로젝트를 통해 수천 곳의 학교와 함께 독자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만 4에서 11세 아동 중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어린이 독서 펀드Children's Reading Fund의 도움으로 조성합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기타 예산은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민간 조력자들과의 협력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www.booktrust.org.uk](http://www.booktrust.org.uk)

## 4.4

**영국 국립독서재단\***

영국 국립독서재단(National Literacy Trust)은 199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재단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향상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공유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국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국 국립독서재단은 책 읽기와 글쓰기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활동하며, 재단의 목적과 부합하는 영향력 있는 이들과 함께 일합니다.

영국 국립독서재단은 책 읽기와 글쓰기가 모든 교육적 성취를 뒷받침하며 이것이 영국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책 읽기가 인간의 잠재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발전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단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책 읽기와 글쓰기에 자신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거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관련 기술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독립적이고 전략적이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영국 국립독서재단은 독자개발이 아니라 책 읽기와 글쓰기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는 책 읽기의 즐거움을 통해 책 읽기와 글쓰기에 영감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 이 단체의 활동이 상당 부분 독자 개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국립독서재단은 프리미어리그, BBC같은 주요 협력기관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 스포츠, 주민센터를 비롯한 많은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책 읽기를 주저하는 독자들과 사회소외계층에도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영국 국립독서재단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한 연구를 진행 : 이를 통해 연구 자원, 관련

활동을 만들어 내고 예산 지원을 끌어냅니다.

- 영국 전역에서 전문가들이 이끄는 회의와 훈련을 개최 : 기존의 방법과 다른 책 읽기와 글쓰기 향상 방법을 살펴봅니다.
-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은 소년 책 읽기 위원회(Boys' Reading Commission)에 깊숙이 관여 : 또한, 정부의 책 읽기 정책 변화를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한 주요 간행물 발간 : 학교를 위한 책 읽기와 글쓰기 안내서(Literacy Guide for Schools), 학교 도서관 위원회(Schools' Library Commission) 보고서를 비롯해 위반적 행동에 대한 책 읽기와 글쓰기의 역할(Role of Literacy in Offending Behaviour)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영국 국립독서재단은 아래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책 읽기 챔피언(Reading Champions) : 스포츠와 음악계의 유명인사들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에서 어린이와 성인들이 책을 읽고 '책 읽기 챔피언'이 되도록 합니다.
- 감옥 책 읽기 챔피언(Prison Reading Champion) : 감옥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삶을 위한 단어(Words for Life) :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개발 계획 및 웹사이트로, 개별 가정에서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젊은 독자 프로그램(Young Readers Programme) 운영 : 만 0세에서 19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가정에 책을 전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책 읽기는 근본이다(Reading is Fundamental)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 프리미어리그 책 읽기 스타(Premier League Reading Stars) : 축구의 대중성을 활용해 책 읽기를 주저하는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 책 읽기로 연결하기(Reading Connects) :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각 학교에서

책 읽기 문화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바이탈 링크(Vital Link) : 성인대상 교육 단체들과 협력해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장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영국 국립독서재단은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과 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유명 후원 인사들을 활용해 언론의 주목과 보도를 이끕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규모로 책 읽기와 글쓰기를 알리고 증진합니다.

또한, 각급 학교를 위해 '학교간 네트워크(Schools Network)'를 제공합니다. 연간 회비로 75파운드를 내면 각종 보고서와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밖에도 협력관계 형성과 기금 마련을 통해 예산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2011년에는 정부가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상당 부분 철회했는데, 이후 재단이 보유한 자원에 사용료를 매기는 한편 정부 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 [www.literacytrust.org.uk](http://www.literacytrust.org.uk)

#### 4.5

##### 오프닝 더 북\*

오프닝 더 북은 레이철 반 리엘이 1990년대 중반에 설립한 독자개발 단체입니다. 그녀의 임무는 독자개발을 통해 도서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창조적 책 읽기'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에서 독자개발을 수립한 사람을 한 명만 거론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레이철 반 리엘일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도서관에서 독자 개발 작업을 시작했고, 도서관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책 읽기 모임과 함께하기, 도서 진열하기, 혁신적 저자 행사 진행하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닌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오프닝 더 북은 정규직 직원과 프리랜스 직원을 모두 채용할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와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와 같은 정부 기관들의 후원을 받기는 하지만, 상업적인 성격을 띤 기업으로서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프닝 더 북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 공공 도서관과 학교를 위한 창조적 실내 디자인
- 혁신적인 도서관 가구 공급
- 도서관 이용객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제작 컨설팅
- 각종 회의에서 독자 중심의 독자개발에 관한 발표 진행
- 독자들이 저자나 장르 대신 주제와 분위기에 따라 책을 찾아볼 수 있는 [www.whichbook.net](http://www.whichbook.net) 웹사이트 운영

오프닝 더 북은 지난 20여년 간 사서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연수 내용은 도서관 공간과 건물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책을 어떻게 진열할지, 도서관 이용객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등입니다. 오프닝 더 북은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점차 국제적인 활동도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 [www.openingthebook.com](http://www.openingthebook.com)

#### 4.6

##### 책 읽기 운동본부\*

책 읽기 운동본부(The Reader Organization)는 폭넓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책 읽기를 통해 이들의 역량강화를 꾀합니다. 책 읽기 운동본부의

활동 대상은 병원, 감옥, 사회복지 시설 수용 아동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상을 벗어나 공공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잡지를 발간하고 어린이를 위한 전집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책 읽기 운동본부를 이끄는 제인 데이비스 Jane Davis는 단체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책 읽기가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이해하고 결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점 ... 생각하는 행위에 흥미를 갖게 하고 친절함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 문학이란 미학적 경험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책 읽기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독자개발을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 향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 단체는 주요 행사와 회의를 진행하고 책과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상 및 사항을 다루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 심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 처방전에 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병원과 함께 작업
-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에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상주독자 reader-in-residence' 운영
- 노인
- 보호대상 아동
- 감옥 수감자

책 읽기 운동본부는 우울증, 치매, 만성통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책 읽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본 자료 작성 시점(2013년 초)을 기준으로, 이 단체는 리버풀에 있는

칼더스톤스 맨션 하우스에 '책 읽기와 행복을 위한 국제 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Reading and Well-being'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www.thereader.org.uk](http://www.thereader.org.uk)

## 4.7

### 영국독서연맹\*

영국독서연맹 The Reading Agency은 2002년에 설립된 단체로, 기존의 독자개발 단체 세 곳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론치패드 Launchpad, 더 리딩 파트너십 The Reading Partnership, 웰 워스 리딩 Well Worth Reading이 하나로 모인 영국독서연맹은 주로 도서관들과 함께 일합니다.

이 단체는 도서관들이 진행하는 독서개발과 관련한 기법들에 영감을 불어넣고, 도전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책 읽기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인 책 읽기 홍보와 프로그램 진행: 여러 도서관을 통해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진행하는 여름 독서대회 Summer Reading Challenge가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40여개 이상의 주요 출판사와 협력: 이를 통해 도서관들에 독자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노동조합, 국립성인평생교육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등과 협력관계 수립: 협력단체의 도움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을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로 이끕니다.
- 세계 책의 날 World Book Day과 세계 책의 밤 World Book Night 기획 및 진행
- 모두를 위한 책 읽기 모임 Reading Groups for Everyone 데이터 베이스 운영: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책 읽기

모임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채터북스 Chatterbooks 운영 : 채터북스는 어린이 독서모임 네트워크입니다.
- 식스 북 챌린지 Six Book Challenge 운영 :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한을 정해놓고 여섯 가지 읽을거리를 끝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기분을 향상하는 책 Mood Boosting Books과 리딩 웰 Reading Well과 같은 독서와 건강 관련 기획 개발
- 젊은이와 실직자들이 책 읽기 활동가 Reading Activist로 활동하도록 격려
- 2월 전국 도서관의 날 February National Libraries Day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도서관 지원
- 각급 도서관에서 훈련도구, 연장, 홍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원 개발
- 책 읽기가 지닌 미덕에 관한 논의를 자극하는 다양한 논문과 서적 발간
- 어린이 도서 섹션에만 갇히기를 원치 않는 십대를 겨냥한 도서관 공간 고안

영국독서연맹은 각 도서관의 독자개발 담당자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성인 독자개발과 어린이 독자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예술 지원기관, 도서관 관련 기관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상업 출판사 및 BBC같은 기업 및 협력기관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www.readingagency.org.uk](http://www.readingagency.org.uk)

## 4.8

### 프리랜서

영국에는 독자개발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자개발이 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프리랜서를 또한 이 분야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교육, 책 읽기와 글쓰기 분야에서 일하기도 하며, 독자개발은 이들이 하는 다양한 업무 가운데 일부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프리랜서는 그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중간 규모와 대규모의 독자개발 단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재정적 지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곧 독자개발 기관에서 일하는 정식 직원의 수가 줄어든 대신 계약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아래 사례들을 통해 독자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멜 깁슨** Mel Gibson<sup>1</sup>은 만화 소설 graphic novel과 만화 읽기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 도서관 사서들이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에 만화 소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sup>1</sup> [www.dr-mel-comics.co.uk](http://www.dr-mel-comics.co.uk)

**자넷 스완** Janet Swan<sup>2</sup>은 좋은 읽을 거리를 찾아주세요 Find Me a Good Read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통해 독자들을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책 읽기 공동체를 조직하고 각종 행사와 책 읽기 모임을 주최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축구팀인 번리 FC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축구단과 협력해 책 읽기와 글쓰기를 위한 영감을 주는 공동체 프로젝트인 클라레츠 크리에이티브 Clarets Creative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sup>2</sup> [www.findmeagoodread.com](http://www.findmeagoodread.com)

톰 포레스트 Tom Forrest는 전직 지역도서관 사서로, 주요 국립 단체에서 독자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책 읽어보기 Try Readi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서관 30개가 참여하는 가족, 성인,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행사인 럭비 리그 월드컵 Rugby League World Cup을 활용해 책 읽기를 위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영국에서는 위와 같은 프리랜서들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어린이와 성인들을 책 읽기로 이끌기 위해 만화, 소설, 축구 등의 자신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과 전국 단위의 단체에서 진행되는 독자개발 계획을 실행하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리랜서들은 경제 위기가 일어난 이후 독자개발 실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4.9 저자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저자들도 독자 개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저자들이 책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특히 어린이 책 저자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학교에 방문하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영국 정부가 각급 학교에서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촉진하도록 강조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와 관련해 독자 개발 계획과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저자들 역시 이를 알아차렸고, 학교들이 이런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과 행사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저자들 본 자료에서 다루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 명의 저자를 소개함으로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토미 돈바반드 Tommy Donbavand<sup>1</sup>는 비명 지르는 거리 Scream Street라는 아동용 도서 시리즈의 저자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흡혈귀 대 늑대인간 Vampires versus Werewolves이라는 게임 쇼를 진행합니다. 이 게임 쇼는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재미있는 형식으로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sup>1</sup> [www.tommydonbavand.com](http://www.tommydonbavand.com)

로미 스미스 Rommi Smith<sup>2</sup>는 시인으로, 문예창작 프로그램과 함께 책 읽기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워크숍 가운데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깊이 들여보도록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희곡의 장면 가운데 하나를 바탕으로 범죄 현장을 구성해보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책 읽기에 참여하게 합니다.

<sup>2</sup> [www.rommi-smith.co.uk](http://www.rommi-smith.co.uk)

헬레나 피에르리해티 Helena Pielichaty<sup>3</sup>는 지금까지 50권이 넘는 동화책을 쓴 작가입니다. 그녀는 현재 웨일스에 있는 학교에서 책 읽기 후원자 Patron of Reading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안에서 책 읽기를 촉진하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다른 작가들 역시 이미 채택 작가 Adopted Authors와 상주 작가 Writers in Residence 등으로 학교에서 작업한 바 있습니다.

<sup>3</sup> [www.helena-pielichaty.com](http://www.helena-pielichaty.com)

책을 출간한 저자들이 학교와 도서관에서 독자개발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정립된 기법과 활동에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며, 이를 통해 영국의 독자개발 활동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 4.10

**영국 국립문학개발협회\***

영국 국립문학개발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Literature Development)는 200개가 넘는 문학 관련 직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종 가운데 대부분은 독자개발 분야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난 2012년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체는 이 자료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독자개발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한데 모음으로써 영국에서의 독자개발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립문학개발협회는 책 읽기와 글쓰기 촉진에 애쓰는 모든 회원을 위해 훈련, 상담, 회의, 온라인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와 소식지, 모임은 예술가관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곧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자개발 활동에 반영되었습니다.

영국 국립문학개발협회의 웹사이트는 아직 접속이 가능한 상태이며, 웹사이트에서는 소식지와 생각할 거리,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활동 내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 국립문학개발협회는 수백 명에 이르는 문학 관련 종사자와 독자개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 단체의 주 목적은 회원들이 하는 일과 그들에 대한 인식을 전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에 문을 닫기 전까지, 영국 국립문학개발협회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와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았고, 회원들이 납부하는 소정의 회비 또한 운영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 [www.nald.org](http://www.nald.org)

## 05

## 뛰어난 독자개발 프로젝트 사례

영국에서는 수백여 개에 달하는 독자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전체에서 진행되며 여러 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아래의 프로젝트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영국 독서개발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 5.1

## 북스타트\*

북스타트Bookstart는 영국 전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난 시점과 만으로 네 살이 되었을 때 책을 담은 상자를 무료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료로 전달되는 책은 아이가 평생 책 읽기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도록 부모가 올바르게 지도하고 격려하게끔 돕는 안내자료와 함께 전달됩니다. 현재 영국 전역 영유아 90%가 북스타트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북스타트는 지난 1992년에 버밍엄Birmingham에서 시작되었고,

영국 전역의 60개 장소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슈퍼마켓 체인인 세인스버리Sainsbury가 600만 파운드에 상당하는 후원을 제안했고, 덕분에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실행하는 한편 대상을 영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로 넓힌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스타트가 책을 전달하는 데에는 여러 협력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 보건 서비스, 지역 교육 당국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계층에 닿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스타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는 3,500개 도서관과 12,000명의 보건 서비스 종사자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다양한 정부 기관들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각 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베이비 팩Bookstart Baby Pack’은 양장 도서 두 권, 아기와 책을 읽는 어른들을 위한 안내자료, 공공 도서관에 가입하는 방법을 담은 정보, 동요 포스터, 더 많은 책을 살 수 있는 토큰을 제공합니다.

‘북스타트 트레저 팩BookstartTreasure Pack’은 세네살쯤 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패키지입니다. 가방, 그림책 두 권, 연필, 연습장이 들어있고 책 읽기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담은 책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서관과 협력기관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스타트 이야기 시간, 저자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아직 북스타트의 수혜를 받지 못한 가족들을 참여 시키고자 합니다.

북스타트의 성공에는 상업 영역의 협력기관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2006년에 이르자 25개에 달하는 출판사가 북스타트를 후원했고, 백만 권에 달하는 책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후원사로부터 받은 책의 가치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960만 파운드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과 2010년 사이, 후원 서적의 가치는 1억 2천만 파운드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문화, 교육, 건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세 곳에서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로햄튼 대학교<sup>University of Roehampton</sup>에서 영국의 독서 관련 상황을 조사한 결과, 북스타트가 시작된 이래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부모의 비율이 78퍼센트에서 91퍼센트까지 상승
- 지역 도서관에 최소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부모의 비율이 64퍼센트에서 85퍼센트까지 상승
- 자녀가 도서관 회원인 부모의 비율이 5퍼센트에서 31퍼센트까지 상승

\* [www.bookstart.org.uk](http://www.bookstart.org.uk)

## 5.2

### 식스 북 챌린지\*

영국에서는 성인 여섯 명 중 한 명이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식스 북 챌린지<sup>Six Book Challenge</sup>는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책 읽기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책 읽기를 통해 자신감을 구축해 삶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직장, 노조, 학교, 공공 도서관을 통해 성인 독자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감옥 수감자를 위해 감옥에서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식스 북 챌린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기존의 장소에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대상인 성인들이 새롭다고 여기거나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는 도서관과 같은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식스 북 챌린지는 참여자들이 여섯 가지 읽을 거리를 보는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여기에는 책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여섯 가지 읽을 거리를 보는 동안,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받은 독서 일지를 쓸 것을 권장받습니다. 프로그램을 완료한 뒤에는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지원 및 활동이 제공되며, 책갈피와 포스터 와 같은 선물들도 제공됩니다.

식스 북 챌린지에는 약 20,000명의 성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다른 주제로 운영됩니다. 2013년에는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영국에서 개최될 럭비 리그 월드컵이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럭비 선수들과 경기 자체에 대한 화젯거리들을 이용해 이 프로그램을 들여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식스 북 챌린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식스 북 챌린지의 관리와 진행은 영국독서연맹이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기관은 영국독서연맹을 통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담은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www.readingagency.org.uk/sixbookchallenge](http://www.readingagency.org.uk/sixbookchallenge)

## 5.3

### 책 읽기 챔피언\*

책 읽기 챔피언<sup>Reading Champions</sup>은 책 읽기를 주저하는 학생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인 독자개발 계획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책 읽기 혁명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남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학생들은 책 읽기와 글쓰기에 있어 전반적으로 여학생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책 읽기 챔피언을 비롯한 많은 독자개발 프로그램이 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남학생들은 또래집단의 영향과 남성적 역할모델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책 읽기 챔피언 프로그램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활용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잘 나가는 남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바로 책 읽기 챔피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주목 받는 빈도가 높고 운동을 잘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남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끌게 합니다.

책 읽기 챔피언들은 포스터를 활용한 캠페인으로 학교 안에서 알려지게 되며, 이들에게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초대할 저자를 고를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음악, 스포츠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독자개발 프로그램을 이끌고 동료 학생들에게 그것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 또한 갖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남학생들 역시 책을 읽도록 고무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상장, 휘장, 독자개발 활동 도구, 유명 축구선수, 레슬링 선수, 음악가의 포스터가 주어집니다.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는 유명인들의 인터뷰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여년 간 3,000곳이 넘는 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발전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책 읽기와 글쓰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남학생들이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도록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책 읽기 챔피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동료 학생들의 책을 읽는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영국 국립독서재단에 90파운드를 지불하고 자료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www.literacytrust.org.uk/reading\\_champions](http://www.literacytrust.org.uk/reading_champions)

## 5.4

### 세계 책의 날\*

세계 책의 날은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행사로, 매년 3월 첫 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세계 책의 날은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독자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세계 책의 날은 학교, 서점, 도서관, 보육시설을 비롯한 3,000여 개의 장소에서 진행되며, 저자들을 비롯해 출판, 책 읽기, 글쓰기 영역의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세계 책의 날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영국의 모든 학생들이 1파운드의 도서 상품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은 모든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가족들이 함께 서점에 가게끔 독려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년 1파운드의 가격으로 출간되는 다양한 어린이 도서도 있습니다. 즉, 도서 상품권으로 책을 구매할 경우 책을 무료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파운드로 제공되는 책들은 유명 어린이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일례로 2013년에 선정된 여덟 명의 작가 중에는 유명 작가인 셸리 휴스 Shirley Hughes와 리즈 픽턴 Liz Picton도 있었습니다. 한편, 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점은 출판사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작품을 출간한 저자들을 홍보할 수 있고, 그들이 쓴 다른 책의 판매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책의 날은 위에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 수백 개의 극장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저자 페스티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 수천 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 속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행사: 이를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에 관한 입소문이 퍼지도록 합니다.

- 수천 개의 학교에서 소설가, 시인 및 여러 분야의 저자들과 함께 저자 이벤트를 진행 : 아이들에게 저자들 또한 자신들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인상적인 웹사이트: 관련 자료, 게임, 링크, 인터뷰,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무료로 제공하는 영어덜트 Young Adult 앱 : 이 앱은 2013년 초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 세계 책의 날 하루 동안 이뤄지는 매체의 엄청난 주목: 저자들을 비롯해 책 관련 전문가들이 인터넷, 방송, 신문지면을 전면적으로 장식합니다.

세계 책의 날이 학교와 도서관, 가족들이 다양한 독자개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로써 작용한다는 점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운영은 행사의 제목과 동명의 비영리 단체인 '세계 책의 날'이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도서 상품권 National Book Token과 다른 협력 기관들이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 [www.worldbookday.com](http://www.worldbookday.com)

## 5.5

### 세계 책의 밤\*

세계 책의 날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이끄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책의 밤 World Book Night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책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 이들을 참여 대상으로 합니다. 이 행사는 매년 4월 23일에 진행됩니다. 이날은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고 죽은 날이자 세르반테스가 세상을 떠난 날인 동시에 UNESCO에서 지정한 국제 책의 날 International Day of the Book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독자개발: 개관 및 사례 보고서

세계 책의 밤을 뒷받침하는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10,00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자기가 즐겼던 책 20권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물려주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읽게 되는 책 20권의 목록은 독자, 도서 판매인, 사서, 저자들로 이루어진 독립적 집단이 결정합니다. 이 목록은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명 소설과 논픽션으로 구성되며, 자원봉사자들은 이 목록에서 책을 골라 다른 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세계 책의 밤은 책 읽기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행사는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처럼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확산하는 것은 책을 선물 받는 이들 중 일부라도 책 읽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고, 이런 능력이 가져다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의 확산은 도서 산업에도 중요합니다. 현재 출판사, 서점, 도서관들은 끊임없이 책 읽기 관련 시장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책을 선물로 받은 20만 명이 넘는 성인들이 모두 책을 즐겁게 읽게 된다면, 도서산업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책의 밤은 행사명과 같은 이름의 회사인 '세계 책의 밤'이 운영하고 있으며, 출판 산업계와 서점 및 도서관 협회의 후원을 받습니다.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퀴리드 Quick Reads 또한 이 행사를 후원합니다.

\* [www.worldbooknight.org](http://www.worldbooknight.org)

## 5.6

### 프리미어리그 책 읽기 스타 (PLRS)\*

프리미어리그 책 읽기 스타 Premier League Reading Star: PLRS는 축구를 사랑하지만 책 읽기는 축구만큼 사랑하지 않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 혹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의 화려함을

05 뛰어난 독자개발 프로젝트 사례

활용해 책 읽기를 주저하는 독자들을 유인합니다.

PLRS는 200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PLRS는 영국 국립독서재단과 영국 축구재단<sup>Football Foundation</sup>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영국 축구재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미어리그<sup>EPL</sup>에서 거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 또한 이 프로그램을 후원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경우 프리미어리그 소속 축구팀을 대표하는 20명의 축구 선수와 그들이 추천한 20권의 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PLRS는 시행 첫 8년 동안 공공 도서관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개별 축구단이 해당 지역의 도서관 최대 네 곳과 협력관계를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축구단과 도서관은 10명의 아동과 부모(혹은 돌봄 인력)에게 네 번에 걸쳐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종종 각급 학교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만 7세와 11세 사이의 아동을 참여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차례의 프로그램은 경기장 관람, 책 읽기 챔피언인 축구선수와의 만남, 저자 방문을 비롯한 책 읽기 모임 활동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과 어른들은 자신이 읽은 책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기념품 가방도 제공되었으며, '프리미어리그 책 읽기 스타'가 되었다는 증서가 주어졌습니다.

2012년, PLRS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로써 도서관을 통해 만나던 800개의 가족보다 수가 더 많은 약 50,000명의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책과 신문, 잡지, 인터넷 자료에서 축구와 관련된 부분을 읽는 프로그램 등 1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또한 확장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진행 아이디어를 담은 도구와 함께 20명의 축구선수가 등장하는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PLRS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있는 1,000곳의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200파운드를 지불하고 관련 자료를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www.premierleaguereadingstars.org.uk](http://www.premierleaguereadingstars.org.uk)

## 5.7

### 어린이 문학상\*

북트러스트는 지난 1999년에 어린이 문학상<sup>Children's Laureate</sup>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며, 초창기에는 서점 체인인 오타카<sup>Ottakar</sup>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세간의 이목을 끄는 행사를 진행하고 언론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수상자의 지위는 2년 동안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틴 블레이크<sup>Quentin Blake</sup>, 앤느 파인<sup>Anne Fine</sup>, 마이클 모퍼고<sup>Michael Morpurgo</sup>, 재클린 윌슨<sup>Jacqueline Wilson</sup>, 마이클 로젠<sup>Michael Rosen</sup>, 줄리아 도널드슨<sup>Julia Donaldson</sup>이 수상자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사서, 도서 판매상, 어린이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가장 최근에 문학상 프로그램에서 수상자로 활동한 마이클 로젠 작가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 시의 모든 것 둘러보기<sup>A to Z of Poetry Tour</sup>라는 대규모 행사 진행
-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에 상을 주는 로알드 달 퍼니 프라이즈<sup>Roald Dahl Funny Prize</sup> 시작
- 시와 친한 교실<sup>Poetry Friendly Classroom</sup>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캠페인 운영
- 책 읽기와 글쓰기 및 시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언론 활동

\* [www.childrenslaureatte.org.uk](http://www.childrenslaureatte.org.uk)

## 5.8

여름 독서대회\*

여름 독서대회(Summer Reading Challenge)는 영국독서연맹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999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에 소홀해지기 쉬운 6주 간의 여름방학 동안 책 읽기 과제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여섯 권의 책을 읽는 도전 과제를 통해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와 도서관 사용을 장려합니다.

사서들은 도서관 외에, 수천 개의 학교를 방문하여 여름 독서대회를 홍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시설 위탁 아동과 난민 등 특별 그룹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협력기관으로는 국립 맹인도서관(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이 함께하여 시각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4세에서 11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전과제는 매년 다른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유령과 공포 장르에 속한 책과 관련된 '으스스한 집(Creepy House)'을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도서관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공공 도서관의 98퍼센트가 여름 독서대회에 참여했습니다.
- 78만 명이 참여해 총 42만 7,500명이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 참여자의 43%는 남자아이였습니다.
- 프로그램 기간 동안 총 300만 권의 책이 읽혔습니다.

행사에 대한 홍보는 스티커, 현수막, 포스터, 책 읽기 패키지를 통해 이뤄지며, 도서관들에는 책 읽기 모임, 저자 행사, 교육 활동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료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또한 영국의 주요 출판사 가운데 일부가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 [www.summertimechallenge.org.uk](http://www.summertimechallenge.org.uk)

## 5.9

책 읽기는 근본이다 / 젊은 독자 프로그램\*

책 읽기는 근본이다(Reading is Fundamental)는 영국 국립독서재단이 1996년에 설립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전제조건은 책을 접하지 못하는 가정에 자원봉사자들과 다른 조직들이 책을 전달하고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0세에서 만 19세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자신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책을 고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 전역의 학교, 감옥, 난민 보호소, 축구 클럽, 학부모 모임에서 진행되어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을 위한 기념품 가방을 전달 뿐만 아니라 저자 행사 등 다양한 독서개발 활동에 관한 생각을 알리도록 훈련받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자신이 고른 책 세 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첫 10년 동안 32만 2,000명의 아이들에게 93만 5,000권의 책이 전달되었고, 현재 2만 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30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프로그램 평가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책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책 읽기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며 아이들의 책 읽기와 도서관 사용을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96년부터 '책 읽기는 근본이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젊은 독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설당 제조사인 테이트 & 라이(Tate & Lyle)이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 [www.rif.org](http://www.rif.org)

## 5.10

**1998 책 읽기의 해\***

‘책 읽기의 해’<sup>The National Year of Reading</sup>는 모든 사람이 책 읽기와 글쓰기를 즐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또한 국가 문해력 전략 National Literacy Strategy을 통해 국민의 평균 지적 수준을 높이고 활발한 평생 교육을 이끌어내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400만 파운드의 예산이 이것에 배정되었고, 이 예산에는 초창기 계획 수립에서부터 홍보 및 마케팅의 전 단계를 비롯해 후원사 섭외와 프로젝트 진행에 이르는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교육고용부<sup>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sup>는 ‘책 읽기의 해’를 실행하기 위해 영국 국립독서재단 측에 사업 계획 및 추진을 위탁했으며 영국국립독서재단은 도서관 뿐 아니라 교육, 예술, 비즈니스, 자원봉사 분야 등의 기관들과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책 읽기의 해’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획된 행사와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독서 개발에 관련된 다른 기관, 단체 및 행사의 활동에 조인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1998/99년 책의 해는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진행되었고, 협력기관을 통해 배포한 300만 장의 홍보물과 함께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가 ‘책의 해 행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영국 국립독서재단은 참여 단체들이 매달 하나씩 집중할 수 있는 12개의 월간 주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월간 주제로는 이야기, 대본, 노래 가사, 운동과 관련한 책 읽기 등이 있었습니다.

책 읽기의 해 프로젝트는 다른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총 86개 프로젝트에 8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책 읽기의 해’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규모의 훌륭한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고, 폭넓은 종류의 책 읽기가 이뤄졌습니다. ‘책 읽기의 해’는 또한 각 지역 예술위원회에도 1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예술위원회들은 같은 규모의 추가 예산을 조성해 영국 전역에서 진행된 행사, 홍보 등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행사를 통해 각급 학교에 저자들을 보내고 소규모 도서 축제와 출판 또한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을 여행하는 책 애호가를 위한 안내서<sup>The Book Lover's Guide to the Internet</sup> 역시 이런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결과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영국 언론은 1년 동안 700개가 넘는 기사와 200편이 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보도로 ‘책 읽기의 해’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책 읽기의 해’는 아직 형성 단계에 있던 독자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이 시간과 돈의 문제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책 읽기의 해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수백 개의 다양한 협력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책 읽기의 해는 12개월 동안 지속되고 끝나는 것을 넘어 ‘전국 책 읽기 캠페인’<sup>National Reading Campaign</sup>으로 이어져 1998년과 1999년 책 읽기의 해를 통해 시작된 작업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책을 읽는데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춰 협력관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 [www.literacytrust.org.uk](http://www.literacytrust.org.uk)

## 5.11

**2008 책 읽기의 해**

1998-1999 책 읽기의 해 프로그램이 독자개발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뒤, 노동당 정부는 2008년 또 한 번의 ‘책 읽기의 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국립독서재단과 영국독서연맹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협력기관을 이끌었습니다.

2008년에는 이전에 진행된 ‘책 읽기의 해’와 차별화를 두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도서관과 학교 밖에서도 참여가 이뤄지기를 원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수많은 공공서가 함께 일하기를 원했고, 전통적인 독자개발을

뛰어넘기 위해 관공서의 모든 영역을 가로지르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부서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998년에 진행된 책 읽기의 해와 비슷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도 월별 주제가 제안되어 도서관, 학교, 협력기관들의 아이디어 창출을 도왔습니다. 2008년에 주어진 주제로는 스토리텔링, 몸과 마음, 책 읽기를 통한 탈출 등이 있었습니다.

1998년과 달리, 2008년에는 프로젝트 운영 기금을 지원할 마땅한 지원 기관이 없었습니다. 2008년 '책 읽기의 해' 예산은 웹사이트 구축, 언론 캠페인을 비롯해 회원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된 도서관 회원 늘리기 캠페인에 쓰였습니다. 특히 회원 늘리기 캠페인은 1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5.12 브랜칭 아웃\*

브랜칭 아웃(Branching Out)은 영국 도서관장협회가 1998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독자들이 동시대에 쓰여진 글을 탐구하고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국 도서관장협회는 브랜칭 아웃 사업 실행 기관으로 오프닝 더 북을 선정하여 첫 3년 동안 33개의 도서관에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국예술위원회가 3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브랜칭 아웃 사업에는 다양한 영역에 속한 협력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 맹인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 시각 장애를 가진 독자들이 주류 문학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자선기관, 학생을 위한 책 Books for Students: 도서관 사업자, 센트럴 잉글랜드 대학교 University of Central England: 훈련을 돕고 평가를 진행 등이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오프닝 더 북은 도서관과 지역에 있는 사서들과 함께 일하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웹사이트도 운영했습니다. 전문가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에서는 저자별로 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관심사에 따라서 별로 책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한 아이디어는 바로 독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 선택하고 다른 독자들을 만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서들은 도서관 이용객들을 돕는 데 이 웹사이트를 활용했고, 웹사이트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독자개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메인 웹사이트는 네트워킹의 기회와 훈련 양식, 관련 웹사이트, 프로젝트, 업무 설명과 관련 분야 연구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프론트라인 트레이닝 Frontline Training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훈련 과정도 제공했습니다.

브랜칭 아웃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출판사와 서점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가 예산 지원이 이뤄졌고, 이로써 잉글랜드 내의 다른 지역과 스코틀랜드, 웨일스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랜칭 아웃은 지난 2006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 [www.openingthebook.com/archive/branching-out](http://www.openingthebook.com/archive/branching-out)

### 5.13 복스\*

복스 BOOKS는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도서관과 함께 진행한 이 사업은 십대들에게 잘 알려진 장르들에 초점을 맞추었고, 도서관들이 십대 독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만 13세가 넘는 청소년들은 어릴 적과 비교해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자개발에 있어 주요한 대상이

됩니다. 북스는 십대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장려하도록 설계한 책 읽기 증진 프로그램,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일 년에 세 번 발간하는 '북스 매거진' 등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 [www.readingagency.org.uk](http://www.readingagency.org.uk)

## 5.14

### 채터북스\*

채터북스는 영국독서연맹이 조직한 책 읽기 모임으로, 어린 독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채터북스는 만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 아이가 살아갈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책에 대한 사랑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찾고 책을 함께 읽으며 책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구축하는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학교 직원들은 채터북스 책 읽기 모임 운영자가 되어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물품이 들어있는 채터북스 책가방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저자와 일러스트레이터를 초대할 수 있는 예산도 있어서 어린이들이 실제 작가와 예술가들을 통해 영감을 받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책 읽기 모임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가족들이 새로운 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채터북스는 2001년에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뒤 116개 도서관에서 200개의 책 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3,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 [www.chatterbooks.co.uk](http://www.chatterbooks.co.uk)

## 5.15

### 북트 업\*

북트 업<sup>Booked Up</sup>은 북트러스트가 운영을 맡은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국에 있는 모든 7학년(만 11세와 12세) 학생들에게 무료로 책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들은 미리 선정한 12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을 받으며, 추가로 오디오북 한 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트 업을 뒷받침하는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어린이가 7학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업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학교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장소를 옮기고, 더욱 학구적이며 심화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곧 아이들이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에 관심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북트 업의 바탕이 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스타트가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아들의 책 읽기를 도운 것과 비슷하게, 북트업도 7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북트 업은 또한 웹사이트, 포스터, 책갈피를 비롯해 학교 선생님 및 사서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 [www.bookedup.org.uk](http://www.bookedup.org.uk)

## 5.16

### 스파인브레이커스\*

어린이와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독자개발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는 초점이 십대 독자개발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보 기술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옮겨 졌습니다.

퍼핀 북스<sup>Puffin Books</sup> 출판사는 젊은 독자들이 자신과 같은 연령대의 독자를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스파인브레이커스<sup>Spinebreakers</sup>를

만들었습니다. 십대들이 모여 청소년 도서 뿐 아니라 다양한 책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는 영상, 팟캐스트, 게시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에 실리는 책은 반드시 퍼핀 북스에서 출간된 것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 [www.spinebreakers.co.uk](http://www.spinebreakers.co.uk)

## 5.17

### 헤드스페이스\*

헤드스페이스는 대략 11세에서 18세 정도의 젊은 독자들이 방문해 책, 음악, 영화, 비디오게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헤드스페이스 공간은 젊은 독자들이 직접 꾸미고 관리합니다.

헤드스페이스는 영국 더비셔<sup>Derbyshire</sup>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독자들 중 한 무리가 스스로를 '책 웨이터'로 자칭해 마실거리, 먹을거리를 비롯해 또래 독자들이 읽을 책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둔 덕분에 영국독자연맹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헤드스페이스는 걸보기부터 기존의 공간과 달라보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책 읽기를 피할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편안한 분위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외에 청소년 클럽이나 카페에서도 헤드스페이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www.readingagency.org.uk/young/headspace/](http://www.readingagency.org.uk/young/headspace/)

## 5.18

### 책 읽어주는 아빠\*

북트러스트는 2013년부터 책 읽어주는 아빠<sup>Get Dads Reading</sup>이라는 언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아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1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에 착안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런던대학교의 교육연구대학원<sup>Institute of Education</sup>이 조사한 결과도 이 캠페인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책 읽기를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트러스트는 캠페인 홍보를 위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작가인 제임스 패터슨<sup>James Patterson</sup>이 이 영상에 출연해 책 읽기에 관해 이야기했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싶어하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조연을 하고 다양한 상황과 나이에 맞는 책 목록 또한 제공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 패터슨 뿐만 아니라 찰스 왕세자의 부인인 콘월 공작 부인 카밀라 역시 이 캠페인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덕분에 이 캠페인은 아이들의 책 읽기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요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 [www.booktrust.org.uk/books-and-reading/children/get-dads-reading](http://www.booktrust.org.uk/books-and-reading/children/get-dads-reading)

## 5.19

### 책 처방 프로그램, 리딩 웰\*

리딩 웰<sup>Reading Well</sup>은 영국 도서관장협회가 2013년에 발표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과 여러 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증, 분노 관련 문제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될만한 자기 계발서 읽기를 장려하여 보건 당국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치료나 지원을 보조한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리딩 웰 프로그램 수행에는 의료계의 지원이 핵심적입니다. 사서 협회(Society of Librarians)는 국립 우수의료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의 연구를 인용하여 책 읽기가 일반적인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신적 건강 증진을 비롯해 스트레스 수치를 67 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 기관 또한 리딩 웰 프로그램을 지지합니다.

리딩 웰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책은 평가를 거치며, 이를 통해 올바른 책이 선정되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리딩 웰 프로그램에는 기분을 향상 시키는 책(Mood Boosting Books)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자기 계발서보다는 소설과 시를 소개합니다. 물론 영국 전역의 책 읽기 모임을 통해 선정하고 정신 보건 전문가들이 인증한 책들만 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할 책 가운데 로저 맥고흐(Roger McGough)와 로리 리(Laurie Lee)와 같은 저자들이 쓴 이 책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딩 웰 프로그램은 2013년 5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www.readingagency.org.uk/adults/quick-guides/reading-well](http://www.readingagency.org.uk/adults/quick-guides/reading-well)

## 5.20

### 리딩 액티비스트

리딩 액티비스트(Reading Activists) 사업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젊은이의 25퍼센트가 실직 상태에 놓여 있으며, 도서관이 젊은이들의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젊은이들의 도서관 이용 또한 저조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서들과 독자개발 담당자들이 만 11세에서 19세 사이의 젊은 독자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소식을 퍼트리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독자개발 관련 행사를 알리고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하는 것, 책 읽기 친구(혹은 개인 차원의 책 읽기 지원)를 조직하고 도서관의 상주 독자가 되는 것 등이 이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리딩 액티비스트 사업은 2013년에 60개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6,000명의 새로운 리딩 액티비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거의 30,000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책 읽기나 글쓰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5.21

### 성인 대상 도서상\*

영국에는 많은 도서상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인 독자 대상의 책에 주어지는 상으로는 맨 부커상(Man Booker Prize), 여성소설상(Women's Fiction Prize), 코스타 도서상(Costa Book Awards) 등이 있습니다.

도서상은 주요 언론으로부터 주목 받습니다. 도서상을 운영하는 기관은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며, 각종 언론매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책 읽기에 대한 특정한 측면들이 회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오렌지상(Orange Prize)라고 불리기도 했던 여성소설상과 관련해, 남성들이 여성 작가가 쓴 책을 읽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서상은 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내 책 읽기에 관한 관심을 늘리고 서점을 통한 책 판매와 도서관의 도서 대출 또한 늘립니다.

\* [www.themanbookerprize.com](http://www.themanbookerprize.com)

[www.costabookawards.com](http://www.costabookawards.com)

## 5.22

어린이 대상 도서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도서상으로는 카네기 메달Carnegie Medal과 케이트 그리너웨이 메달Kate Greenaway Medal, 블루 피터 도서상Blue Peter Book Award 등이 있고, 코미디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로알드 달 퍼니 프라이즈Roald Dahl Funny Prize도 있습니다. 이런 도서상들은 각급 학교에서 포스터, 책갈피 등으로 홍보되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홍보가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책에 관한 의견을 남기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에 관해 토론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어린이 도서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상들은 지역의 학교들이 어린이들에게 세 권에서 여섯 권 정도 되는 책 가운데 일부를 읽도록 권장하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투표로 선정하게 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작은 도서상으로는 솔리힐 어린이 도서상Solihull Children's Book Award과 스톡튼 도서상Stockton Book Award 등이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100개가 넘는 작은 도서상들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판사들 또한 이런 도서상들을 인정하여 각급 학교에 무료로 책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뤄지는 지원 활동은 후보작 목록에 오른 책에 대한 입소문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상을 받은 책과 저자에게는 사람들의 관심도 주어집니다.

학교와 교사 차원에서 볼 때, 도서상 운영은 아이들이 책을 읽도록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가장 즐겨 읽는지 아이들 스스로 비판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흥미진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서상 선정 과정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책과 저자들에 대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곧 어린이들이 책 읽기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책 읽기를 더 즐기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 [www.carnegiegreenaway.org.uk](http://www.carnegiegreenaway.org.uk)

[www.bbc.co.uk/cbbc/articles/blue-peter-book-awards-2013](http://www.bbc.co.uk/cbbc/articles/blue-peter-book-awards-2013)

## 06 파트너십 활동

독자개발 프로젝트 진행에서 파트너십, 즉 협력관계는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트너십은 또한 정부의 예산이 더욱 더 삭감되고 민간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와 도서관의 활동을 향상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독자개발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는 잘 조직된 대규모의 파트너십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전국적인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6.1 초창기의 독자개발 파트너십

브래드포드Bradford시에서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거둔 독자개발 파트너십의 실험은 이후 많은 도서관들이 뒤이어 실천한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브래드포드시의 도서관들은 시내의 서점, 극장, 공연장, 책 축제 등 책 읽기 및 문해력과 연관된 모든 기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각 기관은 함께 일했고, 각각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사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홍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특징 없는 중소 도시였던 브래드포드시는 독자 개발과 저자 행사를 위해 각광 받는 곳으로 수년간 자리 잡았습니다.

### 6.2 퀵리드\*

퀵리드Quick Reads 는 영국 성인 여섯 명 중 한 명은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퀵리드는 출판사와 서점업계, 독자개발 분야가 가장 성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퀵리드는 책읽기에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책을 두려워하는 성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퀵리드 형태로 만들자는 책들은 모두 유명 저자들이 쓴 것입니다. 퀵리드는 읽기 쉽게 쓰여졌고, 특히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운영 덕분에 퀵리드 서적 출간은 이제 출판계의 주요 행사로도 자리잡았습니다.

2013년에는 앤디 맥넵Andy McNab, 미네트 월터스Minette Walters, 닥터후Doctor Who 시리즈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작가와 브랜드들이 퀵리드 형태의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퀵리드로 출간되는 책들을 더 심도있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갖춘 웹사이트 또한 제공될 것이며, 영국의 주요 출판사들이 이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서점들 역시 퀵리드를 후원하며, 갤럭시초콜릿과 같은 브랜드들도 이 프로그램을 후원합니다.

지금까지 퀵리드를 통해 판매한 책은 450만 권에 이르며, 도서관 대출로 퀵리드를 접한 이들의 수도 300만명에 달합니다. 영국 전역의 독자 개발 담당자들은 성인 독자와 새롭게 떠오르는 독자층을 자극하기 위한 완벽한 책의 형태로 퀵리드를 활용합니다. 퀵리드는 모든 종류의 독자들을 위해서도 훌륭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www.quickreads.org.uk](http://www.quickreads.org.uk)

## 6.3

책 읽기 파트너

2004년, 영국독서연맹은 주요 출판사 5개사와 접촉하여 영국 도서관 서비스와 함께 시험적으로 책 읽기 파트너(Reading Partners)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출판사와 도서관들의 협업을 통해 책 관련 시장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페이버 & 페이버(Faber & Faber), 할리퀸 밀스 & 분 Hallequin Mills & Boon,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펭귄(Penguin), 랜덤하우스(Random House)가 이 시험적 파트너십에 참여했습니다. 시험적 파트너십이 곧 성공을 거두자 블룸즈베리(Bloomsbury), 해체트(Hachette), 팬 맥밀런(Pan MacMillan), 타임워너(Time Warner) 출판사도 파트너십에 참여했습니다.

파트너십에 참여한 각 출판사는 시험적 프로그램에 매년 5,000 파운드를 지원했고, 이런 지원은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른 재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도서관 문서고 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 Council)와 영국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영국 내 12개 도서관 권역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 팀을 활용해 영국 전역에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각 지역이 파트너십 활동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서관과 출판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최초의 프로젝트는 48개의 책 읽기 모임과 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판사들이 도서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책 읽기 증진 행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책 읽기 모임들은 영국 전역에서 도서관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각자 책을 고르고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들도 진행했습니다.

- 전통적인 서점 탐방과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도서관 탐방을 진행
- 책 읽기 모임을 활용해 책 표지 디자인에 도움을 제공

- 대형 저자 행사와 독자대상 행사를 치러본 적이 없으며 출판사들과도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은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의 지역에서 행사 개최

도서관과 출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더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도서관과 출판사 양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장소 데이터와 저자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또한 구축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아홉 군데 출판사들은 사업 실행 2년이 지난 뒤 모두 계약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 2년간의 결과는 더 많이 읽는 더 많은 독자들(More Readers Reading More)이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2년 동안의 성과를 기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와 관계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6.4

어린이 책 읽기 파트너\*

2008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 읽기 파트너(Reading Partners)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터복스와 여름 독서대회처럼 영국독서연맹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어린이 대상 활동에 책 읽기 파트너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목표로 삼아 진행하였습니다.

\* [www.readingagency.org.uk](http://www.readingagency.org.uk)

## 6.5

### 워터스톤스와 오프닝 더 북의 연구사업

오프닝 더 북은 1999년 한 해 동안 영국의 대표적인 서점 체인인 워터스톤스 Waterstone's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도서관 및 서점을 기반으로 하는 책 읽기 모임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워터스톤스에서 53,000파운드를 지원했고, 영국 복권 예술위원회 National Lottery Arts Council가 69,000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당시까지 도서관과 상업영역에서 진행한 독자개발 파트너십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워터스톤스와 오프닝 더 북은 책 읽기 모임들이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와 함께 책 읽기 모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감옥, 다이어트 클럽, 서점, 시각장애인 모임 등과 관련되어 개별적 편차가 큰 스무 개의 책 읽기 모임을 조사한 이 연구의 목적은 독자들이 무엇을 읽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모인 독자들을 지원하는 것, 독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가 끝난 뒤, 오프닝 더 북과 워터스톤스는 툴킷을 제작했습니다. 이 툴킷에는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하는 데 유용한 조언을 비롯해 책에 관해 말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임과 도전과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모든 도서관에 2개에서 10개 사이의 수량으로 배포되었고, 감옥 143곳에도 하나씩 전달되었습니다. 워터스톤스에서는 1500개에 달하는 툴킷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 6.6

### 빅 리드

2003년, BBC는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에 투표하는

행사인 빅 리드<sup>The Big Read</sup>를 위해 프로그램 방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온 국민이 모두 책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에 투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투표를 바탕으로 100권의 목록을 완성한 뒤에는 토요일 밤 프라임 타임에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후보에 오른 책 21권을 발표했습니다.

BBC는 학교, 도서관, 서점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 공동체에도 이 사업을 알리고 진행하기 위해 여러 독자개발 단체와 함께 일했습니다. 북트러스트, 영국 국립독서재단, 영국독서연맹과 국립 맹인 도서관이 이 과정에서 주요 협력기관으로 함께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툴킷과 패키지도 배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전역에서 수천 회에 이르는 다양한 행사와 책 읽기 모임, 도서 진열, 판촉, 빅 리드 상주 참여자<sup>Big Readers in Residence</sup>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일 년 동안 진행된 빅 리드 사업을 통해 J.R.R 톨킨<sup>J.R.R. Tolkien</sup>이 쓴 반지의 제왕<sup>Lord of the Rings</sup>이 영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BC는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 국립독서재단과 영국독서연맹 두 단체와 장기간의 파트너십을 전개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문화원은 여러 도서관을 홍보했고, 특히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책 읽기 모임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책 읽기 모임에서 회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 6.7

### BBC RaW

BBC RaW는 읽기와 쓰기를 뜻하는 Read와 Write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사업입니다. 2005년에 시작되어 2007년까지 이어진 이 사업의 목적은

일상적인 책 읽기와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1,200만 명의 성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BBC RaW의 바탕은 책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하지만 BBC는 이 사업을 독자개발 기법과도 연결 지었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야말로 일상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 기술 향상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BBC RaW는 홍보를 위해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책 읽기와 글쓰기 문제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위해 텔레비전 퀴즈쇼, 연속극의 내용, 웹사이트, 잡지를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련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명인과 일반인들이 자신의 책 읽기와 글쓰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수천 개에 달하는 RaW 센터를 통해 책 읽기와 글쓰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감옥, 사업장,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RaW와 접목하도록 요청했고, 행사, 워크숍, 도서 전시 등을 진행했습니다. RaW 센터들에는 퀴즈, 책 읽기 모임, 행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패키지와 DVD 등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BBC RaW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와 인터넷 지원으로 이런 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사업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2006년에는 '열정'을 사업의 주제로 삼고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한 책을 읽고 글을 쓰도록 장려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목표로 해 어린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책 읽기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 6.8

### 책 읽는 시간\*

도서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독자개발 기법과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동안, 각 지역에서는 지역 코디네이터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독자개발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요크셔의 경우가 초창기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의 협업이 이뤄지면서 홍보, 축제, 행사가 만들어졌고, 지역 작가들을 비롯해 많은 협력기관들이 도서관의 책 읽기 서비스 향상에 힘썼습니다.

2003년에는 영국 북서부 지방의 도서관들이 책 읽는 시간<sup>Time to Read</sup>이라는 집단을 형성해 독자개발에 함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집단적 협력은 각 지역이 하나로 뭉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영국의 22개 도서관 권역 각각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이런 모든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코디네이터들을 고용했습니다.

-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지역 프로젝트 운영 : 예를 들어, 2008년에는 로맨스 소설이 주제로 선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 사서들과 지역 저자들이 독자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고안하는 방법 찾기
- 독자개발 관련 활동을 향상하기 위한 톨킷 만들기
- 독자개발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정기적 모임 개최

이런 모델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국 북서부의 도서관들은 그 결과로 독자개발 활동을 부드럽고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www.time-to-read.co.uk](http://www.time-to-read.co.uk)

6.9

**책 한 번 읽어보세요\***

책 한 번 읽어보세요<sup>Try Reading</sup> 프로젝트는 독자 개발과 관련해 2013년에 진행될 지역 단위 활동으로는 가장 규모가 큼니다. 이 사업은 2013년 하반기에 개최될 럭비 리그 월드컵과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책 읽는 시간’ 프로젝트가 주도하고 럭비 리그 월드컵이 협력기관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영국 북부에 있는 도서관 30개가 지역 전체에서 독자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20만 파운드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최대 100여 차례에 달하는 저자 행사와 일반 행사를 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부모들이 럭비 리그 월드컵 관련 책 읽기 활동에 참여한 뒤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이야기 책도 출간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풍부한 책 읽기 관련 자료를 실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을 주 목표대상으로 합니다. 럭비 리그 월드컵은 가족들이 즐기기 좋은 행사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 [www.tryreading.org.uk](http://www.tryreading.org.uk)



## 07

### 개별 행사에 적용 가능한 모델

영국에서 독자개발 활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여러 개별 행사들의 계획과 실행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형태는 책 모임, 저자 행사, 와인과 음식을 곁들인 책 관련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오며 널리 알려진 독자개발 활동으로 각급 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개별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다른 모델 또한 생겨났습니다.

#### 7.1

##### 책 모임

책 모임(book group)은 세 명에서 스무 명에 이르는 사람이 모여 특정한 책이나 특정 범위에 속한 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입니다. 모임을 운영하는 방식과 규칙은 모임의 회원들이 결정하며, 각각의 모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7.2

##### 저자 행사

저자를 초청해 자신의 책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는 행사로, 초대받은 저자는 책의 일부를 읽을 수도 있고 청중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의 수는 장소에 따라 세 명에서 삼백 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7.3

##### 와인과 음식을 곁들인 책 관련 행사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저녁 행사로, 음식이나 술을 즐기며 참여자 각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책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관련된 음식이나 술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7.4

##### 공공 공간 속의 책

독자개발이 주목 받고 떠오르게 되면서 공공 공간이나 사적 공간에도 비형식적인 형태의 도서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기차역에는 책장이나 작은 공간이 있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책을 기부하고 빌리거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비형식적 도서관들은 카페나 직장의 휴게실, 주점, 병원 대기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형식적 도서관에는 정해진 원칙이나 임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책을 집어가고 싶으면 그냥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책을 다시 돌려놓거나 다른 책과 바꾸고 싶다면, 그 또한 상관 없습니다.

## 7.5

책 읽는 모습 포착하기

책 읽는 모습 포착하기(Get Caught Reading)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책 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자 개발 기법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을 흥미로운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한의 책 읽기(Extreme Reading)는 낯설고 엉뚱한 장소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진 속 장소는 나무 위나 물속일 수도 있고, 이국적인 휴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이미지들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들고 책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는 모습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 읽는 양이 여학생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은 편인 남학생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미지 속 선생님은 보통 남자입니다. 방학 중에는 어린이들도 흥미로운 장소에서 책을 든 모습으로 사진을 찍곤 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책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책 표지를 바탕으로 뒤에 가려진 미지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도서관, 공용 시설의 복도 등에 진열되어 사람들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자극합니다.

## 7.6

휴식을 위한 책 읽기

휴식을 위한 책 읽기(Read to Relax)는 영국 북서부 워링턴(Warrington) 지역 도서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도서관에 모여야 하고, 책 읽는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국에서는 주로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책 읽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이용객들에게 책을 잠깐 읽어주고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다과가

제공되며 사람들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위한 책 읽기’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책에 관한 편안한 사회적 모임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 7.7

원 시티 원 북

도시 전체가 한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다는 생각은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펄컨 출판사는 이 개념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감지했고, 이것이 어떻게 독자개발을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할 지 알아차렸습니다. 펄컨 출판사는 리즈(Leeds)시에 있는 도서관 및 서점들과 함께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Perfume)를 선정 도서로 하여 시험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미래의 독자개발 프로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리즈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에는 브리스톨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에서도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도서관에 책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독자들에게 책을 전달했습니다.

책 읽는 리버풀(Liverpool Reads) 프로젝트는 원 시티 원 북(One City One Book)보다 더 강력한 프로젝트로, 학교, 감옥, 도서관, 서점, 교육 담당 관청과 관련 업체를 한 곳에 불러모았습니다. 이들은 프로젝트 주도 집단을 만들고 각종 행사를 담당할 담당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사, 진열, 언론 보도를 진행하였고, 리버풀 시민들은 한 권의 책을 읽고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누렸습니다.

런던에서는 책 읽는 런던(Get London Reading) 사업을 시작해 ‘원 시티 원 북’의 개념을 더 큰 규모로 실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매년 2월

런던 출신의 저자들 혹은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책을 주제로 한 달 동안 행사를 진행하며, 유명 저자들과 신인 작가들, 논픽션 작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행사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는 런던 시내 지역 별로 어떤 작가가 살았는지, 어떤 책이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했는지, 해당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전반을 지원합니다.

## 7.8

### 독자의 날

1999년, 브래드포드시의 도서관 당국<sup>Bradford Libraries</sup>에서 세계 최초로 진행된 독자의 날<sup>Readers Day</sup> 행사에는 150명의 독자가 참여했습니다. 이후 독자의 날은 사람들이 저자와 다른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형식을 통해 도서관이 도서시장 확장을 선두에서 이끌도록 했습니다.

독자의 날은 책을 즐겨 읽는 관객을 양성하기 위해 책 읽기 모임 회원들과 열정적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행사는 하루 동안 진행되었고, 세 명의 저자가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가 아니라 책 읽기 자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쓴 책에 대한 워크숍도 열렸고, 워크숍에서 다룬 책의 편집자와 표지 디자이너들도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책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맞춤형 워크숍인 101번 방<sup>Room 101: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장소를 차용한 이름</sup>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행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책과 저자들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독자의 날 행사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덕분에,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요크셔 지방의 도시 열 곳에서 독자의 날 행사를 진행하도록 35,000파운드를 지원했습니다. 곧 여러 출판사를 위시한 다양한 협력기관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첫 회에 참여한 독자 150명이 퍼트리의 입소문이 뛰어난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판사들은 이런 기회를 얻는 대신 저자와 수백 권의 책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적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여러 출판사가 독자의 날을 처음 접한 순간 '한 줄기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도서관을 통한 독자 개발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원을 제공해야 할 만한 활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독자의 날 행사는 더 풍부해졌고 더 많은 이들을 끌어 모을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크셔 지방에서 독자의 날이 최초로 실행된 이래 영국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호주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같은 행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 7.9

### 축제

영국의 도서관들은 문학 축제를 진행하면서 저자 행사 진행 경험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문학 축제들 역시 도서관의 독자 개발 기법을 활용해 자신의 관객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특히 책 읽기 모임과의 협력과 상주 독자를 활용했습니다.

브래드포드 도서축제<sup>Bradford Book Festival</sup>는 책 읽기 모임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에 어떤 저자가 출연할 예정일 경우 축제 측에서는 저자가 쓴 책을 한참 전에 구해 책 읽기 모임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책 읽기 모임에는 그들이 다루는 저자와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 장려되었고, 이에 맞춰 입소문을 퍼트려 관객을 구축하였습니다.

문학 축제 조직들은 책 읽기 모임이야말로 책과 행사에 관한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이야말로 책에 관해 말하기 좋아하는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해로게이트 국제 범죄소설 축제<sup>Harrogate International Crime Writing Festival</sup>는 리즈와 브래드포드의 도서관에서 진행된 상주 독자 프로그램의 개념과 성과를

눈여겨보았고, 축제 상주 독자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제 기간 중 지역에서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하고 사람들을 방문해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한편 축제 참여 또한 독려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축제들 외에도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300여 개에 달하는 행사를 치르는 대형 도서축제도 여럿 있습니다. 일클리 도서축제 Ilkley Book Festival, 헤이 페스티벌 Hay Festival, 에든버러 도서축제 Edinburgh Book Festival, 첼튼햄 도서축제 Cheltenham Book Festival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축제들은 이미 책을 열심히 읽는 이들에게 잘 알려진 저자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독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생생한 문학 행사가 흔치 않은 지역의 흥미롭고 새로운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에든버러 도서축제는 시내의 유명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참여할 돈이나 자신감이 없을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축제 측은 매년 학교와 도서관, 소년원을 통해 10,000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과 만납니다. 이런 활동은 더 많은 독서 인구를 만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객을 축제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 08

## 언론매체를 활용한 독자개발

영국의 출판사들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 실리는 보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합니다. 저자 인터뷰 혹은 특정한 책이나 저자를 다루는 보도는 홍보 캠페인에서 무척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1990년대 말의 독자개발에 대한 열광적 반응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보다 더 탄탄한 참여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이 오히려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책 읽기 모임과 유사한 형식의 활동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도서관과 서점에서 책 읽기 모임과 저자 행사가 더 큰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매체에서 보도한 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서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 8.1

## 리처드 앤 주디\*

전국에 방송을 송출하는 채널4 방송국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늦은 오후 시간에 방영되는 토크쇼 프로그램인 리처드 앤 주디Richard & Judy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4년, 캐투스TV Cactus TV에서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독자개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해 낮 시간에 진행되는 책 읽기 모임인 리처드 앤 주디 북클럽The Richard & Judy Book Club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섯 권의 책을 다루는 이 책 읽기 모임은 유명인과 일반인 독자를 한데 모아

책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작사인 캐투스 TV는 전국 도서관의 협조와 영국독서연맹의 도움으로 영국 전역에 포스터와 책자를 배포해 프로그램을 알렸습니다. 도서관들은 리처드 앤 주디 북클럽에서 다루는 책을 진열하고 많이 구매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도왔고, 독자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지역 도서관에서 해당 서적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점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선정한 책들을 많이 판매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습니

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웹사이트 또한 도서목록과 게시판, 책 읽기에 관한 조언 및 책 읽기 모임 구성방법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 방송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다룬 책을 할인된 가격으로 독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앤 주디 북클럽은 러블리 본즈The Lovely Bones, 클라우드 아틀라스Cloud Atlas와 같은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고, 장르소설, 논픽션, 전기, 순수문학 등 폭넓은 분야의 책을 다루었습니다.

독자개발이 주는 혜택은 전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 책 읽기 모임 형성이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앤 주디는 방송 중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도 홍보해 더 많은 독자들이 책 모임과 홍보에서 저자 모임에 이르는 독자 개발 활동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2007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리처드 앤 주디 북클럽이 진행되었고, 앤서니 호로비츠Anthony Horowitz와 같은 유명 작가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리처드 앤 주디 프로그램이 채널4에서 종영된 뒤, 두 진행자는 채널4보다 규모가 작은 채널에서 또 다른 독서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점 체인인 WH스미스WH Smith를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책 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는 2013년도 책 읽기 모임과 관련한 내용으로 저자 인터뷰와 추천도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www.richardandjudy.co.uk](http://www.richardandjudy.co.uk)

## 8.2

**퍼스트 뉴스\***

퍼스트 뉴스<sup>First News</sup>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으로, 100만 명이 넘는 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지면의 상당수를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매주 진행하는 독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 코너<sup>Book Corner</sup> : 저자와의 인터뷰
- 북 비트<sup>Book Bit</sup> :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한 도서 리뷰 두 편
- 책과 책 읽기에 관련된 기사들

퍼스트 뉴스는 영국국립문학재단<sup>National Literature Trust</sup>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재단의 로고를 1면에 싣고 있습니다. 이는 신문이 구독자들을 통해 독자개발을 전개하는데 투자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신문의 웹사이트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도서 리뷰를 싣고 책에 관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 [www.firstnews.co.uk](http://www.firstnews.co.uk)

## 8.3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의 '책 읽는 런던' 사업\***

영국의 많은 지역 신문이 독자개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 독자가 170만 명에 이르는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만큼 위상이 높은 곳은 없습니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는 2011년 6월부터 책 읽는 런던<sup>Get London Reading</sup>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신문 1면과 주요 지면을

영국의 독자개발 : 개관 및 사례 보고서

통해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런 활동은 런던 시내에 있는 어린이 네 명 중 한 명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태로 학교를 졸업하며 세 명 중 한 명은 책이 한 권도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는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 외에 재정적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이끌 어냈습니다. 캠페인을 위해 모은 돈은 각급 학교에서 아이들과 일대일로 활동 할 책 읽기 자원봉사 멘토를 운영하는 데 쓰였습니다. 책 읽기 지원 자원활동 Volunteer Reading Help에서 빈스토크<sup>Beanstalk</sup>로 단체명을 바꾼 책 읽기 봉사단체가 여기에 함께 했습니다.

책 읽는 런던 캠페인을 시행한 첫 한 해 동안 100만 파운드의 후원금이 모였고, 훈련 받은 자원 봉사자들이 269개 학교에 있는 1,400명의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교들 가운데 한 곳에서는, 캠페인 진행 전에는 59퍼센트에 불과했던 만 11세 학생들의 시험 통과율이 100퍼센트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 [www.standard.co.uk/news/get-london-reading](http://www.standard.co.uk/news/get-london-reading)

## 8.4

**블루 피터 도서상**

블루 피터 도서상<sup>The Blue Peter Book Awards</sup>은 어린이 대상 도서에 수여되는 여러 도서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이 상은 도서관, 서점과 전국에서 방영되는 각종 매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블루 피터<sup>Blue Peter</sup>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블루 피터 도서상에는 두 가지 수상 부문이 있습니다. 최고의 이야기상<sup>The Best Story</sup>과 사실을 바탕으로 쓴 최고의 책<sup>The Best Book with</sup>

08 언론매체를 활용한 독자개발

Facts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책 *The Book I Could Not Put Down*이라는 수상 부문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상은 블루 피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어린이들이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 후보를 추려내고 직접 수상부문과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과정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며, 이를 통해 어린이 시청자들은 다른 어린이들이 어떤 책이 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좋아하지 않는 책을 자유롭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은 북트러스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출판 업계와 교육계 전체가 포스터와 웹사이트를 통해 이 상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세계 책의 날에 거행됩니다.

09  
참고문헌

다음 참고문헌 목록을 통해 영국의 독자개발에 대한 흥미로운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책과 논문 및 웹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행본

Bell, H. and Mantell, O. (eds.) (2004)  
Hooked—Engaging People in Literature,  
Leeds, Audiences Yorkshire  
2004년에 영국에서 진행된 독자개발 관련 회의를 위해 출간된 책. 책 읽기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한 에세이 스무 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Caldwell, A. (2005)  
Time to Read—examples of reader development work from the North West libraries 2001-2004,  
Manchester, Time to Read  
영국 북부에서 진행된 다양한 규모의 독자개발 사례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Elkin, J. et al. (2003)  
Reading and Reader Development—the pleasure

of reading, London, Facet Publishing  
영국의 독자 개발에 관하여 잘 정리한 학술 서적. 독자개발 분야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artley, J. (2002)  
The Reading Groups Boo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영국의 책 읽기 모임의 역사와 함께 책 읽기 모임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명 소설가인 마가렛 포스터 Margaret Forster가 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Hornby, S & Glass, B. (2008)  
On Reader Development and its Impact in  
Society Facet Publishing  
1990년대와 그 이후 주목 받는 독자개발 활동을 펼친 전문가들이 쓴 글을 모은 책으로, 독자개발 관련 유명인사인 제인 데이비스 Jane Davis와 제인 마티에슨 Jane Mathieson의 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National Literacy Trust (2000)  
Building a Nation of Readers,  
London, National Literacy Trust  
책의 해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Osbourne, S. (2004)  
The Bloomsbury Essential Guide for Reading-Groups, London, Bloomsbury  
책 읽기 모임 시작법과 책을 고르는 방법, 책의 내용에 접근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Palmer, T. (2006)  
More Readers Reading More, St Albans,  
The Reading Agency  
도서관과 출판사가 맺고 있는 파트너십 관계 50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담당자 및 부서 연락처와 관련 개념들을 안내합니다.

Pennac, Daniel (1996)  
Reads Like a Novel Walker Books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낙의 책 읽기에 관한 기발한 시각을 드러내는 소설. 책을 어떻게 감상할 지에 관해 독자의 시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Van Riel, R. & Fowler, O. (1996)  
Opening the Book – finding a good read,  
Bradford, Bradford Libraries  
독자들이 자신의 책 읽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초창기 독자 개발 서적. 유명 작가인 앨런 베넷 Alan Bennett이 서문을 작성했습니다.

Van Riel, R. & Fowler, O. & Downes, A. (2008)  
The Reader- friendly Library Service,  
Society of Chief Librarians  
독자 개발 기법과 독자 개발을 도서관 서비스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안내서

Stelmakh, V D & Cole, J Y (2006)  
Building Nations of Readers: Experience, Ideas,  
Examples, NF “Pushkin Library”, Moscow  
영국, 미국과 러시아에서 이뤄진 독자 개발의 역사에 관한 책. 영어와 러시아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논문

Bell, H. (2001)  
The Pleasures and Pitfalls of Reading Groups,  
Logos, 12 (4), 203-9.

Elkin, J. & Kinnell, M. (2000)  
A Place for Children: public libraries as a major force in children’s reading,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Report 117, 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Great Britain. (1998)  
The National Literacy Strategy: framework for teaching, London, DfES publications.

Kinnell, M. & Shepherd, J. (1998)  
Promoting Reading to Adults in UK Public Libraries, British Library Research and Innovation Report 72, London, Taylor Graham.

McKearney, M. (1999)  
Spreading the Word, Public Library Journal, 14 (4), 106-10.

McKearney, M., Wilson-Fletcher, H. & Readman, J. (2001)  
Revolution by the Book, Public Library Journal, 16 (4), 116-9.

McKeone, G. & McKearney, M. (2002)  
Hard to Ignore: The Reading Agency, Public  
Library Journal, 17 (4), 105-7

Stewart, I. (ed.) (1996)  
Shelf Talk: promoting literature in libraries,  
London, The Arts Council of England.

Train, B. (2001)  
Mind's Eye: evaluation report,  
Birmingham, University of Central England.

Train, B. & Elkin, J. (2001)  
Branching Out: overview of evaluation findings,  
Birmingham, University of Central England.

Train, B., Usherwood, B. and Brooks, G. (2002)  
Vital Link: an evaluation report, Sheffield, Uni-  
versity of Sheffield.

Van Riel, R. (1993)  
The Case for Fiction, Public Library Journal,  
8 (3), 81-4.

Van Riel, R. (ed.) (1992)  
Reading the Future: a place for literature in  
public libraries, London, The Arts Council and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Wallis, M., Moore, N. & Marshall, A. (2002)  
Reading our Future: evaluation of the DCMS/

Wolfson Public Libraries Challenge Fund 2000-  
2001,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Research Report 134, London, 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 웹사이트

[www.artscouncil.org.uk](http://www.artscouncil.org.uk)  
영국의 독자개발에 예산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단체인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웹사이트. 각종 문학 행사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www.bookstart.org.uk](http://www.bookstart.org.uk)  
혁신적인 독자개발 사업인 북스타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웹사이트. 독자개발에 참여하는 학부모,  
도서관, 보건 전문가 및 기자 등을 위한 웹사이트입니다.

[www.booktrust.co.uk](http://www.booktrust.co.uk)  
북트러스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독자, 교사, 부모 및 도서관을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관련 웹사이트에서 어린이를 위한 훌륭한 도서목록을  
제공합니다.

[www.childrenslaureate.org.uk](http://www.childrenslaureate.org.uk)  
어린이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작가들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웹사이트.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마이클 로젠 작가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www.encompassculture.com](http://www.encompassculture.com)  
성인, 어린이, 유아를 위한 도서 목록과 흥미로운 독자개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www.literacytrust.org.uk](http://www.literacytrust.org.uk)  
영국 국립독서재단(National Literacy Trust)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상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책 읽기는 근본  
이다(Reading is Fundamental, 바이탈 링크Vital Link, 게임으로 책  
읽기[Reading the Game, 책 읽기로 연결하기]Reading Connects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www.nald.org](http://www.nald.org)  
영국 국립문학개발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Literature  
Development) 웹사이트. 독자개발 관련 연락처와 읽을  
거리를 제공합니다.

[www.openingthebook.com](http://www.openingthebook.com)  
오픈링 더 북의 주 웹사이트로, 오픈링 더 북이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과 전문 분야를 소개합니다. 오픈링 더 북에서  
진행한 국제 사업 또한 소개하고 있으며, 영국의 독자개발  
역사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http://readers.penguin.co.uk>  
펄컨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책 읽기 모임 자료  
웹사이트. 책 읽기에 대한 조언을 비롯해 저자 인터뷰 및  
책 읽기 모임을 위한 행사를 제공합니다.

[www.readingagency.org.uk](http://www.readingagency.org.uk)  
영국독서연맹(The Reading Agency)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여름 독서대회  
Summer Reading Challenge, 오렌지 문학상(Orange Prize, 채터북

스Chatterbooks, 북스Book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  
읽기 습관에 관한 보고서인 상황을 읽어내기 (2000)Reading  
the Situation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www.time-to-read.co.uk](http://www.time-to-read.co.uk)  
독자개발 활동에서 가장 앞선 지방인 영국 북서부에서  
운영하는 독자개발 웹사이트.

저자 소개

통 팔머는 지난 20년 동안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증진 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독자개발 전문가입니다. 그는 책을 판매하고 저자 이벤트를 홍보하는 도서 판매상으로 경력을 시작했고, 독자개발 담당 사서로 일하며 500회가 넘는 저자 행사와 다양한 책 읽기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사서로 재직하는 동안 영국 최초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행사와 독자의 날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가 기획 한 도서축제는 4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그는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학축제인 일클리 문학 축제로 자리를 옮겼고, 영국독서연맹에서도 5년 간 일하며 211개 도서관 당국과 15개 주요 출판사들의 파트너십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영국 국립독서재단과 프리미어 리그의 협력으로 축구를 통해 책 읽기와 글쓰기를 촉진하는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통 팔머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영국문화원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며 1,500곳이 넘는 학교에서 50만 명이 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책의 저자이기도 한 통 팔머는 대학교 문예 창작과정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며, 교사들을 위해 즐거움을 위한 책 읽기를 촉진하는 기법에 대한 훈련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남학생들과 책 읽기를 주저하는 독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운동을 활용하는데 탁월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 팔머는 지금까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27권의 책을 출간했고, 그의 저서들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현재 만 45세인 통 팔머는 영국 북부에 거주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자 딸의 아버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국문화원 소개

영국문화원은 1934년 설립된 교육, 문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력을 위한 영국정부의 공식기관입니다. 영국문화원은 전세계 사람들과 지식과 아이디어 교류를 통하여 영국에 대한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영국 외무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기반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한영국문화원은 1973년 8월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영국유학안내, 어학원, 각종 영국 시험 운영 등의 서비스 및 문화예술, 기후변화, 사회적 기업 육성, 국공립 영어교사/특성화 고교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britishcouncil.kr](http://www.britishcouncil.kr)

[www.facebook.com/kr.arts.britishcouncil](http://www.facebook.com/kr.arts.britishcouncil)

주한영국문화원 아트팀과 독자개발 관련 사업 소개

주한영국문화원 아트팀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한영 예술가 및 예술 전문가들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아이디어 및 경험을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며, 좀 더 많은 관객들이 동시대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가까이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 및 예술 관련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주한영국문화원은 독자개발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와 함께 한-영 국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책자는 영국의 독자개발 전문가인 통 팔머가 영국문화원의 의뢰로 작성한 영국의 독자개발 사례 보고서입니다.

\*관련 링크: <http://blog.britishcouncil.or.kr/1421>

영국의 독자개발: 개관 및 사례 보고서

글쓴이: 통 팔머  
옮긴이: 박재용  
자료집 편집: 박윤조 김윤정  
자료집 디자인: 김원중

펴낸곳:  BRITISH COUNCI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X

X

X

X

X

X

X

X

X

X

**영국의 독자개발:개관 및 사례 보고서**